

# 현대중국어 부사 ‘還’의 의미 분석

이은수\*

## 目 录

1. ‘還’의 다양한 의미
2. 선행 연구
  - 1) Liu(2000)
  - 2) 高增霞(2002)
3. ‘還’의 의미들 간의 관련성
  - 1) ‘還’의 기본 의미
  - 2) ‘지속’ 의미의 확장
  - 3) ‘시간’ 의미에서 ‘조건’ 의미로
  - 4) 시간 의미 중 ‘함축’ 의미의 발견
4. 결론

## 1. ‘還’의 다양한 의미

현대중국어 부사 ‘還’은 사용 빈도가 높고<sup>1)</sup>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八百詞』는 부사 ‘還’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아래 13개의 의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實用現代漢語語法』은 ‘還’의 의미를 일곱 개로 나누고 일곱 번째 의미를 다시 3개의 하위 의미항으로 구분함으로써 총 9개의 의미항으로 세분하였다.<sup>2)</sup> 또한 郭銳(2008)는 ‘還’의 의미로 11개의 의미항을 제시했다가 郭銳

\* 圓光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現代漢語頻率詞典』에 따르면, ‘還’은 현대중국어의 단어 가운데 사용 빈도 순으로 26 번째이며, 부사 중에는 ‘不’, ‘就’, ‘都’ 다음으로 네 번째의 순위를 차지한다.

2) 이 중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제시한 ‘還’의 의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2)에서는 17개의 의미항으로 더욱 세분하기도 했다.

‘還’는 그 의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還’는 (1)에서처럼 수량의 추가나 항목의 증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2)에서처럼 수량의 감소를 나타내기도 한다.<sup>3)</sup>

1. 경중이나 높고 낮음의 의미 없이 일반적인 어감을 나타냄
    - a.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변치 않음  
(他~在圖書館/ 老趙~沒回來)
    - b.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변하지 않음  
(即使有了一些成績, 也~要繼續努力)
  2. 높음의 어기를 나타냄.
    - a. 정도의 차이를 나타냄; 더욱. 비교문에 쓰임  
(場上的麥子堆得比小山~高)
    - b. 항목, 수량이 증가하고 범위가 확대됨  
(除了他們三個以外, 小組裏~有我)
    - c. ~할 뿐만 아니라 또한  
(小夥子不僅會開拖拉機, 壞了~會修理)
  3. 낮음의 어기를 나타냄.
    - a. 그런대로  
(最近身體怎麼樣? ~~好, ~好)
    - b. 수량이 작거나, 시간이 되지 않았음  
(那年我~只有五歲/ 還只有九點鐘, 不算晚)
    - c. 아직 ~인데 벌써  
(我~上小學的時候, 我姐姐就已經上大學了)
    - d. 아직 ~하지 않았는데 벌써  
(我~沒說話, 他就說知道了)
    - e. ~조차  
(小車~通不過, 更別提大車了)
  4. 주로 감정을 나타냄. 어떤 것은 그 의미가 앞의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의미다.
    - a. 예상을 벗어남, 찬탄의 어기  
(下這麼大雨, 沒想到你~真準時到了)
    - b. 마땅히 어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음. 비난이나 조롱의 어감  
(虧你~是大哥呢, 也不讓着點妹妹!)
    - c. 반문에 쓰임  
(都十二點了, 你~說早!)
- 3) 郭銳(2008, 2012)는 이러한 예에 쓰인 ‘還’가 ‘減量’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 (1) a. 你把他的書包, 還有衣服, 都給他帶去。  
네가 그의 책가방과 옷을 모두 그에게 갖다줘라.
- b. 除了他們三個以外, 小組裏還有我。  
      탐에는 그들 세 명 외에 나도 있다.
- (2) a. 槍響後, 樹上還有一只鳥。  
      총성이 울린 뒤 나무 위에는 아직 새 한 마리가 남아 있다.
- b. 離開車還有兩小時。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두 시간 남았다.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還'은 우등 비교와 열등 비교에 모두 쓰이기도 한다.

- (3) 老王的房間比我的還乾淨。  
      老王의 방은 내 방보다 더 깨끗하다.
- (4) 老王的房間還沒有我的乾淨。  
      老王의 방은 내 방만큼 깨끗하지 않다.

또한 '還'은 (5)에서처럼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6)에서처럼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5) a. 感情比大海還深。  
      정이 바다보다 더 깊다.
- b. 我們山區的蚊子比蒼蠅還大。  
      우리 산간 지역의 모기는 파리보다 더 크다.
- (6) a. 這房間還乾淨一點兒。  
      이 방은 그런대로 조금 깨끗하다.
- b. 今天還算涼快。  
      오늘은 그래도 시원한 편이다.
- c. 一路上還順利。  
      여정 내내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還'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연히 '還'의 다양

한 의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중 Liu(2000)와 高增霞(2002)의 연구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 2. 선행 연구

### 1) Liu(2000)

부사 ‘還’의 다양한 의미 또는 용법을 하나의 기본 의미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로는 먼저 Liu(2000)를 들 수 있다. 그는 ‘還’의 다양한 용법을 ‘지속’의 기본 의미로 개괄할 수 있으며, 척도 모델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척도 모델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還’가 척도 모델에서 두 명제 간의 관계를 환기시키며 ‘還’를 포함하는 명제는 다른 명제보다 더 강한 진술을 이룬다고 보았다.

먼저 ‘還’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 (7) a. 老王還在看電視。  
 老王은 아직도 TV를 보고 있다.  
 b. 老王在看電視。  
 老王은 TV를 보고 있다.

(7a)와 같은 예에서 ‘還’는 이전에 있던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도 지속됨을 나타낸다. (7b)와 같이 ‘還’가 없는 문장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지만, (7a)와 같이 ‘還’를 포함하는 문장은 이전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도 같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척도 모델을 통해 본다면 (7a)는 老王이 지금 TV를 보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TV를 보고 있었음을 함의하므로, 시간에 따라 지속됨의 의미를 통해 ‘還’가 보다 정보량이 큰 진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8) 老王昨天去游泳, 今天還要去。  
 老王은 어제 수영하러 갔는데, 오늘 또 가려고 한다.

위의 예에서 '還'는 동일 동작으로 된 두 사건을 관련시킨다. 척도 모델을 통해 보자면 '還'는 두 번째 사건을 나타내는 절에 쓰이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두 번째 수영하러 간다는 것은 처음 갔던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반복'이란 측면에서 '還'는 역시 '지속'을 나타내며 척도상 더 강한 진술을 나타내는 두 번째 사건에 쓰여 보다 정보량이 큰 진술을 나타낸다.

Liu(2000)는 '還'의 다른 여러 의미들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 (9) 老王買了菜, 洗了衣服, 寫了一封信, 還做了一個蛋糕。  
 老王은 반찬 거리를 사고, 옷을 빨고, 편지 한 통을 쓰고, 또 케익 하나를 만들었다.
- (10) 老王的房間比我的還乾淨。  
 老王的 방은 내 방보다 더 깨끗하다.
- (11) 虧你還在日本住過一年, 一句日語也不會說。  
 일본에서 1년 간 살았다는 거야, 일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면서.

'還'가 동일 동작으로 된 두 사건을 관련지었던 (8)과 달리 (9)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9)에 나타난 사건들이 반드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9)에서 '還'는 '老王'이 앞의 세 동작 외에 또 다른 동작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還'가 있는 절을 포함하는 전체 문장은 '還' 앞의 세 동작의 발생을 함의한다. 따라서 '還'는 여기서도 역시 어떤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보량이 큰 진술을 나타낸다. '還'가 비교문에 쓰인 (10)에서 비교되는 것은 '老王的 방'과 '내 방'이다. Liu의 설명에 따르면 '還'의 출현으로 '老王的 방'은 참조 대상으로 쓰인 '내 방'보다 깨끗함의 척도상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還'가 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還'가 '예상과 다름'을 나타내는 (11)을 검토해보자. 일본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가 일본에서 산 적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면서도 일본에서 1년 간 살았었다면 이것은 화자의 예상의 척도 면에서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還’는 실제 상황과 예상되는 상황 사이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따라서 예상과 다른 실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보다 예상의 척도 면에서 더 높게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보자면 ‘還’가 쓰인 문장은 예상의 척도 면에서 화자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Liu(2000)는 ‘還’가 ‘지속’이란 기본 의미를 가지며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환기시켜 ‘還’는 척도상 더 높은 명제에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설명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還’가 비교문에 쓰인 (10)에 관해 생각해보자. Liu(2000)는 (10)에서 ‘還’는 ‘老王的 방’이 ‘내 방’보다 깨끗함의 척도 면에서 더 높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10)에서 ‘還’를 빼더라도 그 문장은 동일한 척도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比’를 내포하는 비교문에서 주어와 비교 대상보다 척도상 높다는 것은 비교 구문 자체의 의미이지 ‘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열등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 (12) 老王的房間還沒有我的乾淨。  
老王的 방은 내 방만큼 깨끗하지 않다.

Liu(2000)는 (12)와 같이 ‘還’의 의미 영역 내에 부정 표현이 포함되면 ‘還’가 의미의 척도를 ‘깨끗함’의 척도에서 ‘깨끗하지 않음’의 척도로 역전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12)에서도 ‘내 방’이 참조 대상이 되지만, ‘還’는 ‘老王的 방’이 ‘내 방’보다 ‘깨끗하지 않음’의 척도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함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에 관한 Liu의 설명도 (10)에서와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Liu는 ‘還’가 ‘老王的 방’이 ‘내 방’보다 ‘깨끗하지 않음’의 척도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함의하게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결국 ‘老王的 방’이 내 방

만큼 깨끗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12)에서 '還'를 빼더라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열등 비교를 나타내는 구문 자체의 의미이지 '還'의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Liu(2000)는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수량이 작거나 시간이 되지 않았음'의 의미로 제시된 예문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 (13) 人還太少, 編不成隊。  
사람이 아직 너무 적어서 팀을 짤 수 없다.
- (14) 那年我還只有五歲。  
그 해에 나는 아직 겨우 5살이었다.
- (15) 現在還早, 可以再等等。  
지금은 아직 이르니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위의 예에서 '還'는 모두 수량이 작거나 시간이 이름을 나타낸다. 그런데 Liu(2000)의 주장대로 '還'가 '지속'이나 척도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다면, 위와 같은 예에서는 '還'가 왜 반대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쓰이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2) 高增霞(2002)

高增霞(2002) 역시 '還'의 다양한 의미를 개괄하는 기본 의미를 찾고자 했는데, 그가 제시한 '還'의 기본 의미도 역시 '지속'(延續)이다. 또한 그는 '還'가 문장에서 어떤 서열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16) 都12點了, 他還在圖書館。  
벌써 12시인데, 그는 아직도 도서관에 있다.
- (17) 直到他們走出門去, 我還沒全醒過來。  
그들이 외출할 때까지 나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 (18) (連)小車還通不過呢!  
작은 차조차도 통과할 수 없다.

- (19) 感情比大海還深。  
정이 바다보다 더 깊다.
- (20) 小車都通不過, 還說大車呢。  
작은 차도 통과 못하는데, 그런데도 큰 차 얘기를 하다니.
- (21) 虧你還是哥哥呢, 也不讓着妹妹。  
네가 그러고도 오빠라고, 여동생에게 양보하지도 않으면서.

‘還’가 활성화하는 서열은 시간 서열, 척도 서열, 예상 서열로 나눌 수 있는데, 高增霞(2002)가 제시한 위의 예 가운데 (16), (17)은 시간 서열, (18), (19)는 척도 서열, (20), (21)은 예상 서열의 예이다. 먼저 (16), (17)은 다른 시간 지점에서 동일한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18), (19)는 시간과는 달리 주관적인 인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척도상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8)에서 어떤 좁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큰 차’이고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것은 ‘작은 차’이다. ‘還’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작은 ‘작은 차’에서도 가능성이 큰 ‘큰 차’와 마찬가지로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동일한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9)에서도 깊이라는 척도에서 바다는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바다조차도 추월할 수 있다면 다른 깊이가 낮은 사물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 (21)은 언어 행위의 측면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還’를 포함하는 문장은 상대방의 언어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발생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언어 행위에 대해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오빠는 여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여동생에게 양보해야만 오빠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에서는 여동생에게 양보하지도 않으면서 오빠라고 하므로, 앞의 이상적인 조건과 비이상적인 조건이 연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高增霞(2002)는 Liu(2000)와 마찬가지로 ‘還’가 ‘지속’의 기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다만 Liu(2000)가 척도상의 지속 의미로 설명했던



것을 高增霞(2002)는 척도와 예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高增霞(2002)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還’가 비교문에 쓰인 (19)에 대해 그는 ‘比’ 뒤에 오는 것은 (18)의 ‘連’ 뒤에 오는 것처럼 극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을 초과한다면 다른 일반적인 것도 초과함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대로 본다면 ‘바다보다 정이 깊다’는 것은 척도상 ‘(바다보다 깊지 않은) 다른 것보다 정이 깊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척도상의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상황이 연속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還’가 출현하는 모든 ‘比 구문’이 극한 값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시 高增霞(2002)에 제시된 예 (22b)에서 ‘昨天’은 극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陸儉明(1980)에 제시된 (23)~(25)에서도 ‘比’의 목적어가 극한 값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다.

- (22) a.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  
b. 今天比昨天還冷。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 (23) 香蕉比蘋果還好吃。  
바나나는 사과보다 더 맛있다.
- (24) 他比老孫還有辦法。  
그는 老孫보다 더 방법이 많다.
- (25) 哈爾濱比北京還冷。  
하얼빈은 북경보다 더 춥다.

물론 呂叔湘(1982)에 따르면 (22a)에서 ‘어제’는 추운 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 반해 (22b)에서는 ‘어제’가 꽤 추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제’가 극한 값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22b)의 해석이 오늘은 추위의 척도상 극한 값을 가지는 어제보다 추우므로, 그리 춥지 않았던 다른 날보다도 역시 춥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高增霞(2002)는 추위의 척도상 어제와 오늘이 서열을 이루며 그 서열에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오른쪽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의미는 ‘還’가 없는 (22a)도 동일

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역시 비교 구문(‘比구문’) 자체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6) 人還太少, 編不成隊。  
사람이 아직 너무 적어서 팀을 짤 수 없다.
- (27) 那年我還只有五歲。  
그 해에 나는 아직 겨우 5살이었다.
- (28) 現在還早, 可以再等等。  
지금은 아직 이르니 좀 더 기다려도 된다.

또 Liu(2000)와 마찬가지로 高增霞(2002)도 위 예들에 나타난 ‘還’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高增霞(2002)는 ‘還’가 시간이나 척도, 예상의 서열에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還’가 수량이 작거나 시간이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Liu(2000)와 高增霞(2002)는 모두 ‘還’가 ‘지속’을 나타내며, ‘還’를 내포하는 명제와 그와 관련된 다른 명제가 척도상의 서열을 이루며, ‘還’는 척도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還’가 비교문에 쓰인 경우와 ‘還’가 수량이 작거나 시간이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3. ‘還’의 의미들 간의 관련성

#### 1) ‘還’의 기본 의미

본고는 앞서 살펴본 Liu(2000), 高增霞(2002)와 마찬가지로 ‘還’의 기본 의미는 ‘지속’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29) A: 李大壯回家了吗?  
李大壯은 집에 돌아왔나?  
B: 没有, 還在圖書館呢。  
아니, 아직도 도서관에 있어.

예를 들어 (29)에서 ‘還’가 내포된 절(‘還在圖書館呢’)은 그가 도서관에 있는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발화시에도 변치 않고 지속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李冬梅(2015)에 따르면 이 문장은 ‘還’를 강하게 읽느냐 약하게 읽느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문장의 ‘還’는 강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때 ‘還’는 이전의 상황이 지금도 지속됨을 나타낸다. 반면 ‘還’를 약하게 읽으면 문미에 있는 ‘圖書館’을 강하게 읽게 되는데, 이때 ‘도서관에 있는’ 상황은 문맥에 의해 어떤 다른 상황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29)에서는 ‘도서관에 있는’ 상황이 ‘집에 돌아오는’ 상황과 대조를 이루게 되며, 발화시의 상태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30) ‘還’의 ‘시간 의미’ 도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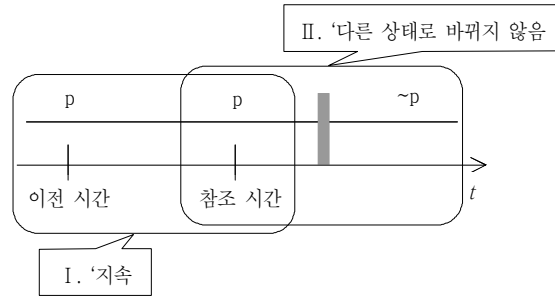


(30)의 의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還’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참조 시간에 어떤 상태(p)에 있다는 것 외로도, 참조 시간 이전에도 그러한 상태(p)에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還在圖書館呢’는 그가 참조 시간에 도서관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도 도서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還’는 ‘이전 시간에도 참조 시간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4) (30), (31)은 李冬梅(2015)의 도식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還’은 ‘참조 시간에 다른 상태(~p)로 바뀌지 않았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9)의 ‘還在圖書館呢’는 문맥에 따라 그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이 의미는 ‘還’가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還’의 시간 의미 도식 II



이와 같이 본고는 ‘還’가 참조 시간에 어떤 상태(p)에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참조 시간 이전에도 같은 상태(p)에 있었음을 전제하고, 참조 시간에 아직 다른 상태(~p)로 바뀌지 않았음을 함축한다고 본다. 그리고 ‘還’의 전제 의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還’의 의미에 내재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지속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에서도 이 전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還’의 함축 의미는 문맥에 따라 부각되기도 하고 부각되지 않기도 하므로, ‘還’의 일부 의미에서만 이 함축 의미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 2) ‘지속’ 의미의 확장

‘還’는 기본적으로 참조 시간에 어떤 상태(p)에 있음을 나타내며, 참조 시간 이전에도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한다. 즉 ‘지속’이라는 ‘還’의 기본 의미

는 참조 시간과 그 이전 시간의 상태에 관련된다.

그런데 '사건'(event)에 '진행상'(progressive)이 쓰이면 '상태'(state)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왜냐하면 '상태'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행' 역시 상황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이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還'가 진행상 표지 '在'와 함께 쓰일 때에도 '還'는 역시 도식 (31)에서 첫 번째 의미,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32) 老王還在看電視。  
老王은 아직도 TV를 보고 있다. (Liu 2000)
- (33) 雨還在下。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다. (徐鵬波, 徐鵬鵬 2009)

'상태' 상황은 본래가 정태적이고 내부 구조가 없으므로 내적으로 동질적이다. 반면 '사건' 상황은 본래 동태적이고 내부 구조가 있어서 내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진행상'과 함께 쓰이면 내적으로 이질적인 과정이 동질적으로 해석된다.<sup>6)</sup> 물론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태'와 '사건의 진행' 모두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여기에 '還'가 쓰이면 (29)와 (32), (33)과 같이 모두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이 이전의 '상태'가 참조 시간에도 지속됨을 나타낸다.

'還'는 또 시작점과 종결점, 특히 종결점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29), (32), (33)에서 '還'가 전에 있었던 종결점이 없는 상황이 이후의 시점까지도 지속됨을 나타낸다면, (34)에서 '還'는 이전에 있었던 종결된 상황이 이후의 시점에도 반복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황의 경계성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還'가 나타내는 '반복'의 의미도 '지속' 의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5) Smith(1991) 참조.

6) Smith(1991) 참조.

- (34) 老王昨天去游泳, 今天還要去。  
 老王은 어제 수영하고 갔는데, 오늘도 가려고 한다. (Liu 2000)

‘還’는 (34)와 같이 동일 동작의 반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35)와 같이 다른 동작의 추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還’를 내포하는 절의 상황은 시간적으로 반드시 그 앞의 상황들보다 더 늦게 일어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7)</sup>

- (35) 老王買了菜, 洗了衣服, 寫了一封信, 還做了一個蛋糕。  
 老王은 반찬 거리를 사고, 옷을 빨고, 편지 한 통을 쓰고, 또 케익 하나를 만들었다. (Liu 2000)

(35)에서도 ‘還’ 앞뒤의 동작들은 (34)와 마찬가지로 종결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34)에서 ‘還’가 동일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35)에서 ‘還’는 다른 동작의 추가를 나타낸다. 더욱이 (35)의 동작들 중 ‘還’와 연결된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그 앞의 동작들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마치 흩어져 있는 물건들처럼 위 동작들은 시간 순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還’는 단지 ‘還’를 내포하는 술어(“做了一個蛋糕”)를 앞의 세 술어와 구분함으로써, 앞의 세 동작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보다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 (36) 你把他的書包, 還有衣服, 都給他帶走。  
 네가 그의 가방과 옷을 모두 그에게 가져가라. (『現代漢語八百詞』)

(35)가 다른 동작의 추가를 나타낸다면 (36)은 다른 사물의 추가를 나타낸다. 이처럼 ‘還’가 (동작이나 상태가 아니라) 사물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상태나 동작의 지속 의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

7) Liu(2000) 참조.

## 3) '시간' 의미에서 '조건' 의미로

'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후의 시점에도 이전 시점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이후의 시점에도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는 이전과 다른 조건에서도 상태가 지속됨의 의미로 연결된다. (37)~(39)는 高增霞(2002)에서 '還'가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예로 제시된 것인데, 이 중 (39)는 조건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40)~(42)는 郭銳(2008)에서 '조건이 달라져도 상태가 지속됨'의 의미로 제시된 것인데, 이 중 (40)은 시간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還'의 시간 의미와 조건 의미가 서로 혼동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래 예에서 보이는 시간 의미와 조건 의미의 차이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가능 세계에서 존재하는지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sup>8)</sup> 이렇게 볼 때 '還'가 나타내는 시간 의미와 조건 의미는 연속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 都12點了, 他還在圖書館。

벌써 12시인데, 그는 아직도 도서관에 있다.

(38) 直到他們走出門去, 我還沒全醒過來。

그들이 외출할 때까지 나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39) 要嫌少, 她還可以再加。

만약 적다면 그녀는 더 추가해도 된다.

(高增霞 2002)

(40) 哼, 也就是他, 丟了稿子還能睡那麼香。

흥, 역시 개야, 원고를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달게 잘 수 있구나.

(41) 我不希望你生病還來上班。

나는 네가 아픈데도 출근하러 오는 걸 바라지 않아.

8) 물론 郭銳(2008)가 제시한 다음 예에서는 조건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하나의 조건이 아닌 임의의 조건에서도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임의의 조건'은 하나의 시점으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i) 總得再結個婚, 不管和誰, 日子還得過下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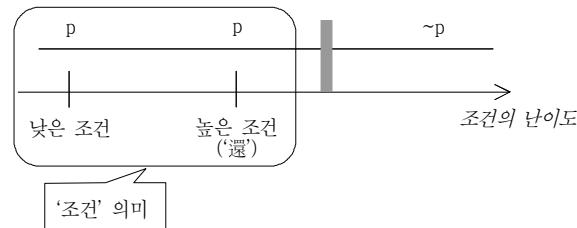
(ii) 床不管怎麼爛, 也還是自己的, 不用竄來竄去找刷夜的地方。

(42) 眞要是碰上個脾氣不好的, 人家還能饒他?

정말 성미가 나쁜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봐줄 수 있을까?(郭銳2008)

이러한 조건 의미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還’의 시간 의미가 시축상에서 이전 시점에 유지되던 상태가 이후의 시점에서도 유지됨을 나타낸다면, ‘還’의 조건 의미는 조건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한(즉 결과 상태(p)를 도출하기에 쉬운 조건을 낮은 조건, 결과 상태를 도출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높은 조건으로 하는) 축 위에서, 이전의 낮은 조건에서 유지되던 상태가 더 높은 조건에서도 유지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41)의 ‘你生病還來上班’이 나타내는 것은 ‘네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출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네가 아플 때도 출근한다’는 것이다.

(43) ‘還’의 ‘조건 의미’ 도식



‘還’의 조건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조건보다 더 높은 조건에서도 결과 상황이 지속되고 변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높은 조건에서도 같은 상태가 유지됨’의 의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나 예상과 관련하여 정도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39)와 같이 높은 조건에서도 결과 상황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예상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40), (41), (42)처럼 이렇게 높은 조건이라면 결과 상황도 마땅히 바뀔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과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나타낼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조건 의미의 ‘還’를 내포하는 문장은 높은 조건에서도 결과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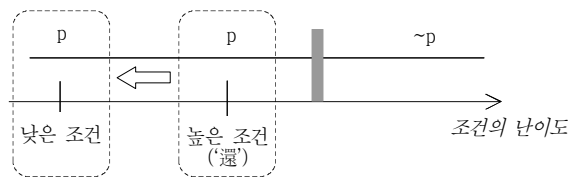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이 예상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상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에는 심지어 '예상 밖'의 의미로까지 발전한다.

'還'의 조건 의미는 논리적 함의를 나타내는 문맥을 낳을 수 있다. 높은 조건에서도 어떤 결과 상태를 도출했다면 그보다 낮은 조건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결과 상태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4)에서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p)는 결과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조건의 측면에서 난이도를 따진다면, '큰 차'는 이 결과 상태를 도출하기에 쉬운 조건이고 '작은 차'는 이 결과 상태를 도출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작은 차'라는 어려운 조건(높은 조건)에서도 통과할 수 없었다면, '큰 차'라는 쉬운 조건(낮은 조건)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45), (46)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 (44) 小車還通不過呢, 就別提大車了。  
작은 차도 통과할 수 없는데, 큰 차는 말도 꺼내지 마라.
- (45) 連平面幾何還沒學過呢, 何況解析幾何?  
평면기하도 아직 안 배웠는데, 하물며 해석기하야 말할 것도 없지.
- (46) 連五千米還跑不了呢, 一萬米就更不行了。  
오천 미터도 뛸 수 없는데, 만 미터는 더욱 안 되지.

(47) 조건 의미의 '還'가 나타내는 '논리적 함의'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比'를 내포하는 비교 구문(이하 '比 구문')에 쓰인 '還'가 조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比 구문에 쓰인 '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比 구문에 쓰인 '更'과의 대조에 있었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比 구문에 쓰인 ‘還’ 역시 조건 의미, 즉 더 높은 조건에서도 상황이 변치 않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 (48) a. 小王比他還高。 b. 小王比他更高。  
小王은 그보다 더 크다.  
(49) a. 香蕉比蘋果還好吃。 b. 香蕉比蘋果更好吃。  
바나나는 사과보다 더 맛있다.  
(50) a. 他比老孫還有辦法。 b. 他比老孫更有辦法。(陸儉明 1980)  
그는 老孫보다 방법이 더 많다.

위와 같이 比 구문(X+ 比Y+W)에 쓰인 ‘還’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還’ 역시 ‘더’라는 우등 비교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중 어떤 것은 ‘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우등 비교의 의미가 ‘還’가 본래 가진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먼저 陸儉明(1980)이 지적한 것처럼 ‘還’는 比 구문(X+ 比Y+W)의 ‘比Y’ 없이는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반면 ‘更’은 본래 우등 비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比Y’ 없이도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48') a. \* 小王還高。 b. 小王更高。  
小王은 더 크다  
(49') a. \* 香蕉還好吃。 b. 香蕉更好吃。  
바나나는 더 맛있다.  
(50') a. \* 他還有辦法。 b. 他更有辦法。  
그는 방법이 더 많다.

(48'a), (49'a), (50'a)에서 ‘還’가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문장에 비교 대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還’는 역시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 (51) a. 你倆, 他跑得更快。 b. \* 你倆, 他跑得還快。



건'에서도 장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比 구문'에 쓰인 '還'은 어떤 기술 대상이 본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다른 대상과의 비교에서도 이 대상은 여전히 해당 속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는 'X+比Y+還W' 구문이 우선 'XW', 즉 X가 W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본다.

'還'와 달리 '更'은 이러한 전제를 동반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還'가 내포된 比 구문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更'이 내포된 比 구문은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57) a. \* 紅色的蠟燭不比白色的蠟燭還便宜。  
 b. 紅色的蠟燭不比白色的蠟燭更便宜。  
 빨간색 초는 흰색 초보다 더 싸지 않다.
- (58) a. \* 他的圍棋不比我的圍棋下得還好。  
 b. 他的圍棋不比我的圍棋下得更好。  
 그는 바둑을 나보다 더 잘 두지 못한다.
- (59) a. \* 新疆的西瓜不比北京的西瓜還甜。  
 b. 新疆的西瓜不比北京的西瓜更甜。  
 신강의 수박은 북경의 수박보다 더 달지 않다.

'更'은 본래가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還'은 '比 구문'에서도 단지 어떤 대상과의 비교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기존에 있던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還'가 '比 구문'에 쓰일 때는 '어떤 대상과의 비교'가 '높은 조건'으로 해석되므로, 화자는 '比'의 목적어로 쓰인 비교 대상이 해당 속성의 높은 속성값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X+比Y+還W'는 Y가 W의 속성을 가짐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Y가 W의 높은 속성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X+比Y+還W' 구문에서 W의 속성 면에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Y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만한 높은 속성값을 갖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예

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높은 속성값을 갖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還'은 실제적인 비교 뿐만 아니라 비유나 과장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이게 된다. 반면 본래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更'은 실제적인 비교에 국한하여 쓰인다.

- (60) a. 小王比他還高。                  b. 小王比他更高。  
小王은 그보다 더 크다.  
(61) a. 香蕉比蘋果還好吃。          b. 香蕉比蘋果更好吃。  
바나나는 사과보다 더 맛있다.  
(62) a. 他比老孫還有辦法。          b. 他比老孫更有辦法。  
그는 老孫보다 방법이 더 많다.  
(63) a. 我們山區的蚊子比蒼蠅還大。    b. \*我們山區的蚊子比蒼蠅更大。  
우리 산간 지역의 모기는 파리보다 더 크다.  
(64) a. 那條蛇比碗口還粗。          b. \*那條蛇比碗口更粗  
그 뱀은 사발 주둥이보다 더 굵다。 (陸儉明 1980)

(60)~(62)는 실제적인 비교를 나타내므로 '還'을 '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반면 (63), (64)는 실제적인 비교가 아닌 비유나 과장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63a)는 '우리 산간 지역의 모기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산간 지역의 모기가 '파리와 비교'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역시 크다는 다소 과장된 또는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63b)처럼 '還' 대신에 '更'이 쓰이게 되면 모기와 파리의 실제적인 비교를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sup>9)</sup> (64) 역시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X+比Y+還W' 구문에서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Y'는 일반적인 실제 비교 대상으로부터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서는 비교 대상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Y'는 'W'의 속성 면에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삼자 비교에서 '更'과 '還'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9) 陸儉明(1980) 참조.

- (65) a. 長江比黃河長, 比淮河就更長了。  
 b. \* 長江比黃河長, 比淮河就還長了。  
 양자강은 황하보다 길고, 회하보다는 더 길다.

陸儉明(1980)은 (65)를 통해 ‘更’은 삼자 비교(三項比較)에 쓰일 수 있으나 ‘還’은 삼자 비교에 쓰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文全民(2008)은 (65)가 삼자 비교가 아니라 여러 층위로 된 양자 비교(兩項比較)라고 본다. 즉 (65a)는 세 개의 대상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長江과 黃河의 길이를 비교하고 나서, 黃河가 淮河보다 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화자가 다시 長江과 淮河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자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실 (65a)에서 두 번의 양자 간 비교(長江과 黃河, 長江과 淮河의 길이 비교)를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比 구문’이며, ‘更’은 두 번의 길이 비교를 통해 후자의 길이 차이가 전자의 길이 차이보다 더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更’이 두 번의 비교를 통해 어느 비교에서의 차이가 더 큰지를 나타내는 ‘우등 비교’의 의미는 ‘比 구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更’이 나타내는 의미이다. ‘更’은 본래가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비교에 쓰일 수 있지만, 본래 우등 비교의 의미가 없는 ‘還’은 이렇게 ‘比 구문’과는 별개인 우등 비교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X+比Y+還W’ 구문에서도 ‘還’은 Y와의 비교(‘比Y’)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기존의 속성이 유지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교 대상 ‘Y’는 W의 속성을 가질 뿐 아니라 W의 높은 속성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65b)에서 ‘還’을 내포하는 절(‘比淮河就還長了’)의 비교 대상 ‘淮河’는 앞 절의 비교 대상인 ‘黃河’보다도 길이의 속성 면에서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65b)가 올바른 문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沈家煊(2001)의 다음 예처럼 순서를 바꾸어 ‘還’을 내포한 절의 비교 대상이 앞절의 비교 대상보다 속성 면에서 더 큰 값을 갖는다면 그 문장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66) 長江比淮河長, 比黃河還長呢。  
양자강은 회하보다 길고, 황하보다도 더 길다.

이렇게 볼 때 ‘X+ 比Y+ 還W’ 구문에 쓰인 ‘還’ 역시 ‘X가 Y와의 비교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W의 속성을 갖는다’는 조건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還’의 ‘그런대로’, ‘그럭저럭’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67) 今天還涼快。 (Liu 2000)  
오늘은 그런대로 시원하다.  
(68) 最近身體怎麼樣? 還好, 還好。 (『現代漢語八百詞』)  
요즘 몸이 어때? 그런대로 좋아.  
(69) 這房間還乾淨一些, 那房間髒死了。 (Liu 2000)  
이 방은 그런대로 조금 깨끗한데, 저 방은 지저분해 죽겠다.

(67)~(69)와 같은 예에 쓰인 ‘還’에 대해 『現代漢語八百詞』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라는 의미를, 郭銳(2008, 2012)는 ‘기본적으로는 만족함’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 역시 ‘還’의 조건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還’의 조건 의미는 일반적인 기준의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도 기준에 있던 상황이 지속됨’을 뜻한다. 예를 들어 ‘還’를 내포하는 (67)에서 ‘今天’은 높은 조건을, ‘涼快’는 이 높은 조건에 대응되는 상황으로서의 속성을 나타낸다. ‘還’의 조건 의미에서 여러 조건들은 난이도에 따라 배열되는데 낮은 조건이란 이러한 속성이 도출되기에 쉬운 조건이고 높은 조건이란 이러한 속성이 도출되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今天’이 ‘還’로 인해 높은 조건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今天’이 ‘涼快’라는 속성이 있다고 하기에 어려운 조건임을 뜻하며, (67)이 의미하는 것은 ‘今天’이란 조건이 ‘涼快’라는 속성이 있다고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涼快’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67)~(69)를 발화할 때 화자는 한편으로 그 조건이 해당 속성을 갖기에 어렵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sup>10)</sup> 따

라서 이때 조건에 대응되는 속성값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흔히 ‘還’ 뒤에 ‘算’을 부가하여 속성값이 그리 높지 않다는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sup>11)</sup>

(69)에서는 ‘이 방’과 ‘저 방’이 등장하는데, ‘이 방’은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저 방’은 깨끗하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깨끗하다’라는 속성에 대응되는 조건의 난이도 측면에서 ‘이 방’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깨끗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당히 높은 조건이고 ‘저 방’은 (깨끗하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의 조건이다. 따라서 (69)에서 ‘還’를 내포하는 첫 번째 절은 ‘이 방은 깨끗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높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깨끗하다고 해 줄만 하다’로 해석된다. 반면 (69)의 두 번째 절에서 ‘저 방’은 더러운 정도가 너무 심해서(너무 높은 조건) ‘이 방’과는 다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9) ‘(69)’의 ‘조건 의미’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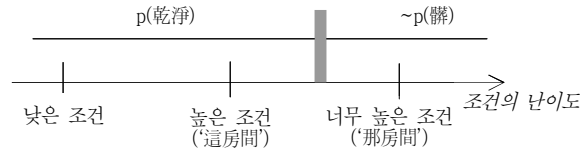
10) 郭鏡(2008)는 이러한 용법의 ‘還’에 대해 ‘다른 측면의 상황은 부족하지만 이 측면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는데, 郭鏡의 설명은 이러한 용법의 ‘還’가 나타내는 기술 대상에 대한 다소 상반되는 두 가지 평가를 내포하는 어감(‘한편으로 그 조건이 해당 속성을 갖기에 어렵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還’는 (i)과 같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ii)와 같이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둘 모두 ‘조건 의미’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높은 조건’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상황이 지속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먼저 아래 (i)에서 화자는 ‘바다와의 비교’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感情’이 ‘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바다와의 비교’라는 높은 조건에서도 해당 속성이 유지되므로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i)에서 서술 대상은 주어인 ‘感情’이고, 높은 조건은 ‘比大海(바다와의 비교)’이다. 이와 달리 (ii)에서는 서술 대상과 조건이 나뉘어 있지 않다. ‘這房間’은 서술 대상이자 ‘높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즉 ‘這房間’은 깨끗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높은 조건’으로 해석되면서도 그래도 좀 깨끗하다고 기술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때 ‘還’는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나타내게 된다.

(i) 感情比大海還深。

(ii) 這房間還乾淨一點兒。





‘還’의 조건 의미와 관련된 의미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상 밖’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還’의 조건 의미는 기준과는 다른 높은 조건에서도 결과 상황이 지속되고 변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높은 조건에도 결과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정도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이 높은 조건에도 결과 상황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還’의 조건 의미는 ‘예상 밖’이라는 의미로도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학자가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還’를 다른 학자는 예상 밖의 의미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음 예문은 예상 밖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예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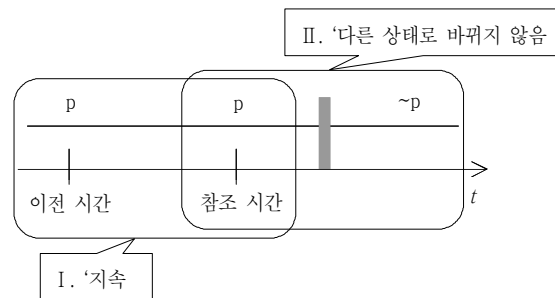
- (70) 虧你還在日本住過一年，一句日語也不會說。  
일본에서 1년 간 살았다면서, 일본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다니.
- (71) 下這麼大雨，沒想到你還真準時到了。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뜻밖에도 넌 정말 제 시간에 도착했구나.

먼저 (70)을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 일본에서 1년이나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일본어를 꽤 잘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일본에서 1년이나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1년이나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뿐더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1년이나 살아봤다고 말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 상황이라면, 일본어를 상당히 할 줄 아는 것은 예상 범위

내의 일반적인 조건(낮은 조건)이고 일본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예상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특별한 조건(높은 조건)으로 볼 수 있다. ‘還’는 이렇게 특별히 높은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 상황이 유지된다고 말함으로써 조건과 결과 상황의 대응이 예상 밖임을 나타낸다. (71)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이 가능하다.

#### 4) 시간 의미 중 ‘함축’ 의미의 발전

(31) ‘還’의 시간 의미 도식 II



우리는 앞서 ‘還’의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위의 도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먼저 ‘還’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참조 시간에 어떤 상태(p)에 있으며, 참조 시간 이전에도 그러한 상태(p)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還’는 ‘참조 시간에는 아직 다른 상태(~p)로 바뀌지 않았음’의 의미도 나타낸다. 예를 들어 ‘還在圖書館呢’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도서관에 있었으며 지금도 도서관에 있다는 뜻이지만, 적절한 문맥만 주어진다면 아직 다른 상태(예를 들어 ‘집에 돌아온 상태’)로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還’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를 ‘還’가 함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還’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상태로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李冬梅(2015)가 지적한 것처럼 ‘還沒’ 구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

하면 '沒'는 어떤 상황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還'의 이 두 번째 의미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 (72) A: 李大壯在家嗎?  
李大壯은 집에 있니?  
B: 還沒回來呢。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상태로 바뀌지 않았음의 의미는 척도상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척도상 낮은 단계에 있음의 의미로도 연결된다.

- (73) 老王的房間還沒有我的乾淨。  
老王的 방은 아직 내 방만큼 깨끗하지 않다.

Liu(2000)는 위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 표현으로 인해 척도가 역전되었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還'가 '다른 상태로 바뀌지 않았음'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것이 '척도상 더 높은 단계로 바뀌지 않았음'의 의미로도 연결된다고 본다면, '還'가 '척도상 낮은 단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73)과 같은 예문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還'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문맥상 참조 시간 이후의 시간이나 단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4) 但離畢業還有一段時間，我會盡力的。  
그러나 졸업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나는 최선을 다 할 거야.  
(謝白羽 2011)

(74)의 '還' 역시 이전의 시점보다는 이후의 '졸업'이라는 시점을 고려하여 그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還'의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의미의 ‘還’ 뒤에 수량 표현이 올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이나 수량을 나타내므로 郭銳의 지적대로 ‘減量’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75)에서는 달리기가 끝나는 시점, (76)에서는 새가 전혀 없는 시점을 다른 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상정하여, 그때까지 양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 시간의 수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75) 還剩下7圈時, 王軍霞就開始冲刺, 一直到結束, 使人感到這仿佛不是一萬米, 而是八百米比賽。 (謝白羽 2011)  
 아직 일곱 바퀴가 남았을 때, 王軍霞는 벌써 스피트를 시작하여 끝까지 계속해서, 이게 마치 만 미터가 아니라 팔백 미터 경기 같은 느낌을 주었다.
- (76) 槍響後, 樹上還有一只鳥。 (郭銳 2008)  
 총성이 울린 뒤 나무 위에는 아직 새 한 마리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이 ‘還’의 이 두 번째 의미는 특정 문맥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李冬梅(2015)가 지적했듯이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이미 특정 문맥의 도움 없이도 ‘양이 적음’ 또는 ‘시간이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77) 當他還只有一支步槍高的時候, 他就隨着工農紅軍, 經過二萬五千里長征到陝北。  
 그가 아직 총 한 자루 정도의 키밖에 안될 때, 그는 工農紅軍을 따라 이만 오천 킬로미터의 장정을 거쳐 섬서성 북쪽에 도착했다.
- (78) 至於我看那好戲的時候, 卻實在已經是“遠哉遼遼”的了, 其時恐怕還不過十一、二歲。  
 내가 그 좋은 연극을 보았을 때는, 정말 벌써 아주 먼 일이다. 그때는 아마도 아직 열 한두 살에 불과했다.

#### 4. 결론

현대중국어 부사 ‘還’는 그 의미가 다양할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의미들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학자들은 '還'의 이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Liu(2000)와 高增霞(2002)처럼 학자들은 대체로 '還'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還'가 내포된 명제는 척도상 더 강한 진술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설명으로는 '還'를 내포하는 많은 예들, 특히 비교문과 척도상 낮음을 나타내는 예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금 '還'의 여러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고 역시 '還'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다만 '還'는 때로 문맥에 의해 '다른 상태로 바뀌지 않음'의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의미는 '還'의 여러 다른 의미와도 관련된다. 먼저 시간에 따른 지속 의미는 조건의 변화에 따른 지속 의미로도 발전한다. '比 구문'에 나타나는 '還' 역시 이러한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상 밖'의 의미 역시 '조건'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還'는 문맥에 따라 '다른 상태로 바뀌지 않음'의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還'의 이러한 의미는 흔히 참조 시간 이후의 다른 상태를 고려하게 되는 문맥 하에서 발견된다. 또 척도상 낮음을 나타내는 '還'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高增霞(2002)「副詞“還”的基本義」,『世界漢語教學』, 2.
- 郭 銳(2008)「語義結構和漢語虛詞語義分析」,『世界漢語教學』, 4.
- 郭 銳(2012)「共時語義演變和多義虛詞的語義關聯」,『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 李冬梅(2015)「副詞“還”的“停留於發展過程中的早期階段”義」,『漢語學習』, 6.
- 劉月華, 故韡, 潘文娛(2001)『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陸儉明(1980)「還”和“更」,『語言學論叢』, 6.
- 呂叔湘主編(1999)『現代漢語八百詞: 增訂本』, 商務印書館.
- 馬 真(1984)「關於表示程度淺的副詞“還”」,『中國語文』, 4.
- 沈家煊(2001)「跟副詞“還”有關的兩個句式」,『中國語文』, 6.
- 文全民(2008)「“更”和“還”在肯定與否定比較句中的差異」,『世界漢語教學』, 1.
- 謝白羽(2011)「“還”的主觀性及其句法實現」,『漢語學習』, 3.
- 徐鵬波, 徐鵬鵬(2009)「副詞“還”的語氣義分析」,『北京教育學院學報』, 23.
- 王還, 常寶儒(1986)『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Liu, Feng-hsi(2000) “The Scalar Particle HAI in Chinese”, *Cahiers de linguistique-Asie orientale*, 29.
-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43).

Abstract

## A Semantic Analysis on the Chinese Adverb HAI

Lee, Eun-soo

The Chinese Adverb HAI has a lot of meanings, and some meanings seem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o scholars have been interested in how these meanings are related. Scholars such as Liu(2000) and Gao(2002) often claim that the basic meaning of HAI is 'persistent', and that the proposition containing HAI makes a stronger statement. But we show that this claim cannot explain many other instances containing HAI, especially the instances in the 'Bi(比) construction' and the instances meaning 'low in scale.' In this paper, we try to relate various meanings of HAI.

The basic meaning of HAI is 'persistent through time.' But we argue that HAI can also have an implicature of 'not be changed to different state.' These two meanings are related to other meanings of HAI. First of all, the 'persistent through time' meaning is related to 'persistent through change of condition' meaning. The instances of HAI in the 'Bi(比) construc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instances that have 'conditional meaning.' 'Counter to expectation' meaning also comes from this 'conditional meaning.'

HAI can have an implicature which means 'not be changed to different state,' depending on the context. This meaning of HAI usually appears in the context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state after the reference point. In addition, the 'low in scale' meaning can also be considered to come from this meaning.

Key words : Hai, reference time, scale, presupposition, implicature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